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82호

(본 잡지는 점자로 발행되고 있으며, 발행본 원고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2월 25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비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 나솔인(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대표)

### 장애인계 뉴스

1.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 탄생
2. 점역·교정사 자격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3.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앱 사용은 여전히 어렵기만해
4. 점사랑 1.0 개발 이후 6년만에 점사랑 2.0 출시!...시연회 가진 후 전국에 배포돼
5. 도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각장애인들  
-안나푸르나 등반에 도전하는 송경태 씨와 안마봉사로 체육 공로상을 수상한 정철우 씨
6.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장애인이 직접 만든다
7. 부산 수영구, 문서·홍보물 등에 보이스아이 코드 사용
8. 광주 광산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발행

사람이야기: “장애인합창단으로 주목받기 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시각장애인합창단 ‘라파엘코러스’의 오세정 단장

독자마당: 과메기의 계절 / 탁노균(대전광역시, 2011세계시각장애인볼링대회 금메달리스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2월 1일~2월 15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0)

## 포커스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비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술인(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대표)**

어릴 적, 비가 오는 남산 길을 아버지와 함께 종종 산책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남산 길을 거닐며 빗방울이 참 예쁘다 하셨던 아버지의 얼굴엔 싱글벙글 미소가 가득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머리칼과 눈썹은 반사되는 빗방울 때문에 어린 제 눈엔 더벅거리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다 워낙 축축한 것을 싫어하던 제게는 그다지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훨씬 들은 그 후로도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비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각장애가 있으신 아버지와 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를 찾으시던 많은 분들을 수 없이 안내해야 했던 경험들에 이유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일렬로 서로 팔짱을 끼신 서너 명의 성인 남자 어른들을 안내하기란 영 쉽지가 않았는데다 눈이나 비라도 오게 되면 다 젖거나 넘어지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죠.

스무 살이 조금 넘어 캐나다 밴쿠버의 비가 오는 어느 겨울 날, 시각장애가 있던 캐나다인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도 역시나 비가 내렸습니다. 당연히 제 코트와 머리는 다 젖었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그 친구는 오질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흰 지팡이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참이 걸렸다는 친구는 “Sorry!”라고 말하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저보다 더 엉망으로 젖어있던 친구는 제 속마음을 읽었는지 비가 오면 왜 즐거운지 알려주겠다고 저보고 앞장서라 했습니다. 속으로 내심 짜증을 냈던 저는 미안한 마음에 친구를 따라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비를 맞으며 기왕 이렇게 된 거 빗속이라는 무대에서 연기를 하자고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연극배우가 꿈이었다는 그 친구의 간단한 설명이 있고서 우리는 ‘방금 3등석 배를 타고 외국에서 온 가난한, 그러나 멋진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 여인들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요. 그렇게 울고 웃으며, 그리고 서로의 꿈이 뭐였는지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 후로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나는 지금 연기 중이고 훌륭한 배우니까 매우 잘 해내야 한다’, ‘사는 게 다 그런 것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겪는 일들을 ‘국민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버리는거죠.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마음가짐이 어려움 속에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의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유어웨이는 하나의 ‘모임’이고 그 산하에 비영리 사단법인과 서울 필동의 기부 카페, 장애청년희망지원센터, 서초구 어머니 공부방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경기도 여주와 광주광역시의 공익학원과 공익도서관 그리고 회원들의 자조모임인 ‘따스함’과 ‘우리 동네 사 진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어웨이라는 단체의 시작은 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편지의 내용은 성폭행과 그로 인한 폭행으로 뇌와 머리뼈 일부가 손상된 채 3년 동안이나 버림받다시피 살아온 한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녀에게는 머리뼈 재건과 안면 성형, 심리치료와

주거 및 환경개선, 교육 등 너무 많은 것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받고 제 메일주소록에 있는 400여명에게 전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을 것을 나누어보면 어떨까”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저를 포함 12명이 한 자리에 모였고 그것이 유어웨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한참동안 유어웨이가 지금에 이를 것이라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제가 쓰일 수 있는 곳에서 쓰임을 받으며 오히려 제가 스스로 많은 성장을 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딱 채운 4년이 지난 지금 그간 활동을 통해 만난 500여명의 재능기부회원 및 병원들과 함께 1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의료 및 생활, 교육 지원 그리고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과 개개인의 자립심과 자존감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를 먼저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다면 못했을 다양한 지원과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난 4년간 많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단순한 지원만이 아닌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기로 약속한 동료들과 수혜자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많은 회원들이 계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에 유어웨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번 힘들 때마다 제게 비를 맞는 법을 알려주었던 친구의 이야기가 항상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과연 저는 빗속의 그 친구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스스로 굳은 다짐을 합니다. 누군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나선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7년 전 위암수술을 받고 걱정을 많이 끼쳐드렸는데 매순간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면 뛰어가지만 인생에서 비가 온다면 즐기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따뜻한 차 한 잔이 더 향긋하고 감사하게 느껴질 거야. 그리고 날씨는 곧 다시 개일테니까.”

## 장애인계 뉴스

### 1.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 탄생

시각장애인 최영 씨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법관으로 임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7일 시각장애인 최영 씨(32세, 사법연수원 41기)를 비롯해 86명을 판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었으며, 현재 시각장애 1급이다. 지난 2008년 제 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지난 달 사법연수원 과정을 1030명 중 40위권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최영 판사 임용에 대비해 대법원은 독일, 영국, 미국 등 시각장애인 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시각장애인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최영 판사의 업무를 도울 보조인을 따로 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 내 대표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 2. 점역·교정사 자격시험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공인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시험의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다.

'점역·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변경된 내용 중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보았다. 바뀐 규정은 올해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점역·교정사의 직무가 기존의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교정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에서 '문자를 점자로 번역·교정하여 점자도서, 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을 제작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로 직무내용이 확대되었으며, 1·2급 응시자격 중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경력이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었다. 시험 3일전까지 가능했던 검정료 환불이 시험 7일전으로 늘어났다. 또한 올해부터는 법무부장관 요청 시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 시설내의 지정 고사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자격등급 중 준1급이 1급으로 통합된 것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자격등급이 1급, 준1급, 2급, 3급 체계에서 준1급이 1급으로 통합되어 1,2,3급으로 변경되었다. 1급은 2급에 해당하는 과목 중 2과목 이상을 합격한 자(영어는 필수과목임)이며, 2급은 3급을 소지한 자로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과목에 합격한 자, 3급은 기존대로 국어과목에 합격한 경우이다.

검정과목 또한 중국어와 일본어가 새로 추가 되어 기존 국어, 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 4과목에서 6과목으로 늘어났으며 중국어와 일본어의 시험 가능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배점기준도 바뀌었는데, 시각장애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국어과목의 경우 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점자상식, 점역실기, 교정실기가 각각 20점, 20점, 60점이고, 비시각장애인은 20점, 60점, 20점이다. 나머지 과목은 점역실기, 교정실기의 배점이 시각장애인은 20점, 80

점, 비시각장애인은 80점, 20점이다.

채점기준도 크게 달라졌는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어과목의 경우 점역 실기 시험은 점역응시자는 최고 60점, 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20점에서 한 음절 틀릴 때마다 2점씩 감점하되 띄어쓰기를 틀린 경우에는 1점씩 감점한다. 교정 실기 시험은 한 문제당 2점씩 점역 응시자는 최고 20점, 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60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영어 등 제2외국어 과목의 점역 실기 시험은 약자 또는 글자 단위로 채점하고, 점역 응시자는 최고 80점, 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20점에서 한 음절 틀릴 때마다 2점씩 감점하되 띄어쓰기를 틀린 경우에는 1점씩 감점한다. 교정 실기 시험은 정답을 쓴 한 문제당 2점씩 점역 응시자는 최고 20점, 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80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수학, 과학(컴퓨터)과목 및 음악과목의 점역실기시험은 점역 응시자는 최고 80점, 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20점에서 한 단위 틀릴 때마다 2점씩 감점하되 띄어쓰기를 틀린 경우에는 1점씩 감점한다. 교정실기시험은 정답을 쓴 한 문제당 2점씩 점역 응시자는 최고 20점, 점자교정 응시자는 최고 80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 3. 장애인에게 공공기관 앱 사용은 여전히 어렵기만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56.0점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4월 공포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장애인 편의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모바일 앱은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90점 이상을 받은 앱이 단 한개도 없었다. 80점 이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HangleCard',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코리아', 경기도가 개발한 '경기문화의 전당' 등 고작 3개뿐이었으며, 그나마도 3곳 모두 80.0점을 받아 80점대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다.

80점이라면 나쁘지 않은 점수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정도 점수라면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조차 법률에 제시된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편의 제공이 왜 필요한가의 취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점수 분포를 보면, 조사 대상이었던 100개의 앱 가운데 '우수(90~100점)'는 한개도 없는 반면, '매우 미흡(0~50점)'은 58개나 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특히 시각장애인 관련 접근성이 가장 취약했는데, 이미지를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신 제공해야할 텍스트 정보가 없는 것은 약과이고, 심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화면읽기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앱도 있었다.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모바일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접근성 부재로 유용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유재호 센터장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므로 "꾸준히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접근성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100개 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행정안전부 고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지침'을 참고하여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장애인들이 직접 사용성을 평가했다.

#### **4. 점사랑 1.0 개발 이후 6년만에 점사랑 2.0 출시!**

점역프로그램 '점사랑 2.0'이 출시됐다. 2006년 개발된 '점사랑 1.0' 이후 6년만이다.

점사랑 1.0은 현재 국가공인 점역교정사 시험에 수검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각장애인기관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특수문자에 대한 점자처리·프린터 사용에 있어 제한이 있었으며, 최근 발표된 윈도우7 운영체제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았다. 또한 점자를 목자로 바꾸는 역점역 기능이 없어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간에 점자를 통해 문서교류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지난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점사랑 2.0 개발사업을 시작했으며, 입찰을 통과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출시된 점사랑 2.0은 자체파일형식·점역코드·문서화지원 등을 통해 보다 편리한 점역기능을 제공하며, 점사랑 1.0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했다. 윈도우7 운영체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역점역 기능과 점자프린터 및 점자정보단말기 출력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유니코드 등 특수문자 사용이 가능해졌다.

한시련은 지난 2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사랑 2.0의 기능을 소개하는 시연회를 가졌으며, 점자 분야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 **5. 도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각장애인을**

##### **-안나푸르나 등반에 도전하는 송경태 씨와 안마봉사로 체육 공로상을 수상한 정철우 씨**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40년 가까운 시간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있다. 전자가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송경태 관장이고 후자가 한강안마원 정철우 원장이다.

송경태 관장(51세)은 시각장애인으로는 세계최초로 '극한 마라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바 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등반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15일 출국했다. 안나푸르나는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데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기상이 돌변해 가장 오르기 어려운 봉우리로 알려져 있다. 비장애인도 오르기 힘든 그곳을 1급 시각장애인인 송경태 관장이 오르는 것이다.

이번 등반을 위해 송 관장은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해왔으며, 한국산악회 전북지부 김유성 구조대장, 이중기 등반대장과 함께 오를 예정이다.

또 한명의 주인공은 육상선수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38년간 무료 안마봉사를 해온 정철우 원장(64세)이다. 대전에서 안마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철우 원장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월 21일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각장애인이 체육계에서 공로상을 받은 것은 정 원장이 처음이다.

대전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이기도 한 정철우 원장은 1993년부터 장애인과 극빈층을 위해 2만 5천원이 든 통장을 300명이 넘는 이들에게 나눠줬으며,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재활치료를 도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도전과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장애와 나이,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그들의 열정과 희생에 박수를 보낸다.

## 6. 서울시의 대중교통 이용환경, 장애인이 직접 만든다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사업 전체 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유형별 장애인과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이라는 이름에서 '마실'은 이웃집에 놀러간다는 뜻의 방언으로, 교통약자가 아무 어려움 없이 서울 시내를 마음껏 누빌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그룹이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교통시설물들이 주로 관리자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개설된 후에 교통 약자의 불편사항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초기 단계부터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요구·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마실그룹을 결성했다.

'장애인 이동편의 마실그룹'은 지체·시각·청각·여성 등 이동 장애 유형별 관련 단체에서 5명, 이동편의 관련 전문기관에서 2명, 보행·교통 전문가 3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 중 장애인이 7명, 비장애인이 3명이다. 이들은 시설계선 설계부터 시공, 마무리 검토단계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1곳을 선정해 마실그룹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환경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현재 후보지는 서울역, 서울숲, 국립중앙박물관 3곳이다. 3월 중 후보지 3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하고 이중 한 곳을 선정하게 된다.

이후 마실그룹은 설계업체에 불편사항이나 개선방향 등을 전달하고 시공에 들어간 후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감독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마실그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시행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김재정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은 “앞으로 교통약자의 눈높이에서 맞춤형 교통복지사업을 추진해 실질적인 이용자에 최적화된 이동편의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7. 부산 수영구, 문서·홍보물 등에 보이스아이 코드 사용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박현욱)은 지난 2월 15일부터 문서, 책자, 구정 홍보물 등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넣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종 교재, 신문, 잡지, 민원서류 등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에 보이스아이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이스아이는 최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출시되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수영구 담당자는 "이번 문서 내 보이스아이코드 입력작업이 어르신,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범위를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8. 광주 광산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소식지 발행**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2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구청소식지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점자소식지에는 지역 소식과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 등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실용적인 내용이 실렸으며, 발행부수는 100부이다.

현재 광산구에는 약 1천 600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행되는 점자소식지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광산구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배포됐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독서에 불편함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광산구보에 음성변환코드인 보이스아이를 넣어왔으며, 이번 점자 소식지발행은 보이스아이코드 사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찾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점자 소식지는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람이야기

### “장애인합창단으로 주목받기 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

#### -시각장애인합창단 ‘라파엘코러스’ 의 오세정 단장

지난해 10월 KBS ‘남자의 자격’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합창단이 등장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목소리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에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도 많았다. 그날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며 동상을 수상한 이들이 바로 ‘라파엘코러스’이다.

라파엘코러스를 만나기 위해 종로에 위치한 연동교회를 찾았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점심을 함께 하고 연습을 한다. 시끌벅적 일주일간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단원들이 모습이 마치 가족들이 소풍을 온 듯 보였다. 연습을 하는 동안에도 진지함 속에 웃음이 배어났다.

2009년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와 해외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을 해오고 있는 라파엘코러스의 가족 같은 분위기는 이들을 이끌고 있는 오세정 단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오 단장은 20년 이상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사무처장을 맡는 등 30년 간 공직에 종사해왔으며, 퇴임 이후 단장을 맡아 라파엘코러스와 함께 해오고 있다.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세정 단장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라파엘코러스의 연습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따뜻함과 행복이 전해져왔다. 인터뷰가 끝났음에도 자꾸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건 아마도 그 때문인 듯하다.

#### -라파엘코러스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빛중창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 합창단이 있었고 내가 단장을 맡은 것이 2008년이였다. 기존에 합창단을 이끌던 목사님을 중심으로 재소자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합창으로 봉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분들 꿈이 외국에 나가 공연을 하는 거였는데 그분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도움을 청하셨다. 단장직을 맡아 외국공연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다. 내가 아무래도 공직에 오래 있었다보니 해외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 인맥을 동원하고 내 개인적인 사비를 더해 미국으로 공연을 다녀왔다. 그러다 합창단을 이끌던 목사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셨고 내가 단장직을 계속 맡게 됐다. 2009년부터 라파엘코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 -현재 단원 수는 몇 명이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지.

“26명 정도이다. 라파엘코러스는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개방되어있다. 우리가 전문적인 합창단도 아니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받아들인다. 오디션을 보지는 않는다. 다만 실력이 너무 부족한 분은 기존의 단원들과 격차가 있기 때문에 받기 힘들 것 같다. 합창단을 찾는 대부분이 노래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고 또한 노래를 잘한다고

소개를 받고 오는 분들이다.”

-연습장소가 종로인데, 단원 모두가 서울 거주자인지.

“인천, 경기도 광주, 동두천, 파주 등 인천, 경기도 일원에 있는 분들이 많다.”

-연습장소로 모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연습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는지.

“먼데 사는 분들도 매주 빠짐없이 오신다.”

-연습에 매주 참석하는 단원들의 열정이 대단하다. 단원들에게 라파엘코러스는 어떤 의미인가.

“그분들한테는 힘을 얻는 원천, 근원이 되는 것 같다. 음악을 통해 시각장애인 단원들 스스로 치유 받고 재능기부를 통해 행복과 희망을 전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단원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누린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

-악보, 지휘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화음을 맞추는 지 궁금하다. 연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녹음을 해서 파일을 드린다. 서울시립합창단분들이 봉사를 해주신다. 각 파트별로 녹음을 해주시면 파일로 만들고 가사는 점자로 찍어 합창단원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일할 때도 듣고 틈나는 대로 듣고 익혀서 연습 날 와서 맞춰본다. 그동안 공연을 해왔던 레퍼토리가 몇십 곡쯤 된다.”

-그렇게만 연습을 해도 화음이 맞는 건가.

“들은 대로 연습을 하고 현장에 와서 지도를 받아가며 화음을 맞춰간다. 연습들을 열심히 해 오신다. 개인연습이 안되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 최근에 합류하신 분들은 레퍼토리를 모두 익히고 외워야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다.”

-연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단원 모두 행복하고 즐거워보였다. 연습 분위기도 따뜻하고 가족 같았다.

“단원들 사이에 인간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한 멤버라는 소속감을 주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다. 교회의 자원과 제 선후배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안과나 치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오면 부모가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단원들의 자녀와도 교류를 하고 있다.”

-가장 보람 있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단원들이 음악을 통해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본인들이 치유 받고 감동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경험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

**-운영할 때 가장 힘든 점은.**

“크게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재정적으로 조금 더 풍족했다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라파엘코러스 활동을 통해 불식시키고 싶다.

앞으로 잘 훈련하고 뒷받침해주면 세계적인 합창단도 될 수 있다고 본다. 합창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니까. 한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는가. 감동을 주고 좋아하게 만들면 그게 한류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대만에 가서 외국팀들과 경쟁을 하면서, 합창으로도 충분히 한류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우리 고유의 것을 살리면서 세계화에 맞게 접목을 한다면 국제무대에서 합창 한류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합창단이라고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애와 상관없이 합창 자체로 한류를 만들고 싶다.

**-kbs ‘남자의 자격’ 방송 이후 화제가 되었다. 방송 이후 공연 제의도 많이 들어오는지.**

“공연에 대한 문의가 좀 늘었다. 근데 생업에 종사하는 단위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다보니 공연을 많이 하지는 못 한다. 외국 가는 것도 많은 시간을 내지는 못한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으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을 최대한 안 뺏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다보니 보통 금요일에 공연을 많이 한다. 금요일마다 연습을 하니까 공연이 있는 날은 연습을 안 하고 공연을 하는 식으로, 최대한 개인적인 시간을 안 뺏으려 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합창단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시각장애인합창단’이라는 점보다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합창단으로 기억되고 싶다. 장애인합창단이라고 특별히 주목받기 보다는 온전히 합창 실력으로 인정받고 감동의 화음을 들려줄 수 있는 합창단이 되었으면 한다.”

## 독자마당

### 과메기의 계절

#### 탁노균(대전광역시, 2011세계시각장애인볼링대회 금메달리스트)

동료가 남문시장에 과메기를 사러 간다기에 내 것도 하나 부탁했다. 아들 생각이 난 것이다. 얼마 전에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과메기 먹어봤느냐고 물었다. 뜬금없는 질문에 피식 웃으며 먹고 싶으냐고 되물었더니 괜스레 쑥스럽다는 듯이 제 말꼬리를 물며 대답했다. 과메기를 먹어본 친구들이 맛있다고 하기에 자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거였다. 나는 계절 음식 찾아 먹듯이 두어 번 정도는 꼭 먹는다. 추운 겨울이 와야만 먹을 수 있는 별미니 어쩌다 맛이랄도 보지 못하고 겨울이 다 지나가버리면 아쉬운 마음이 들어 기분이 허전해지곤 한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안주 삼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은 먹어볼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아내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 식탁에는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음식이다. 다음에 한번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우연찮게 과메기를 먹게 되었다. 익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처럼 완전히 날 것도 아니었다. 물고기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망설이고 있는데 함께 술을 먹던 이가 맛있다고 무조건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다. 용기를 내어 마른 김에 씹을 싸서 입에 넣었다. 약간은 쫄깃쫄깃한 느낌과 비릿한 냄새는 씹을수록 입맛을 당기게 하였다. 소주를 곁들여 먹으니 감칠맛이 입 안을 뱅뱅 돌아다녔다. 그 후로 해마다 겨울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과메기가 미역을 휘감고 요동을 쳤다.

과메기는 겨울철 동해안에서 생산된다. 청어나 콩치의 눈에다 꼬챙이를 꽂아서 바닷바람이 부는 덕장에 널어놓는다. 밤이 되면 육지에서 부는 찬바람이 콩치의 푸른 등을 더욱더 시퍼렇게 뽀뽀 얼려버린다. 해가 뜨면 훈훈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잔뜩 얼었던 몸뚱이를 어루만져 사르르 녹인다. 이렇게 며칠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과메기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바닷바람과 햇빛에 시달려 껍데기는 비록 거칠고 주글주글해져 보기 흉해도 모진 풍파를 견뎌낸 과메기의 속살은 바닷속을 누비고 다닐 때보다 더 풍부한 영양가와 맛을 지니게 된다. 매서운 북풍한설 속에서 피어난 매화처럼 깊고 그윽한 맛을 만들어 낸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얼굴처럼 온화하고 담백한 맛이 좋다.

몇년 전이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동안 서로 잊고 지냈다. 과메기 안주와 술잔을 앞에 놓고 마주 앉았다. 바깥에서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그도 나만큼이나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다. IMF가 닥쳤을 때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던 그는 감원대상이 되어 실직하고 말았다. 다른 직장을 구하려 애를 썼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잔을 비우고는 쓴맛을 다셨다. 퇴직금과 전세금을 빼서 아내와 함께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장사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좌절과 실의에 빠져 술로 지낸 날이 많았다. 단칸방에서 생활고에 지쳐 잠든 아내와 어린 자식을 내려다보며 차라리 다 같이 죽어버릴까 생각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때마다 잠든 아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곤 했다며 다시 소주잔을 비웠다. 그는 과메기 한 점을 초장에 찍어 미역에다 싸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다. 다시 힘을 낸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나섰다. 지금 아내는 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얻어 장사하고, 자기는 건설현장에서 공사 관리를 맡아 일한다고 말했다. 나는 담담한 마음으로 소주잔을 들어 입에 털어 넣었다. 쓴맛이 입 안에 가득 차올라 절로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친구는 삼을 싸서 내밀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눅눅하고 비릿한 과메기 맛이 차츰 쓴맛을 담백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었다.

드넓은 태평양을 종횡무진 휘젓고 다니던 콩치 한 마리가 어느 날 그물에 걸려 잡혀왔다. 눈에 꼬챙이가 꽂힌 채 겨울 찬바람 속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대목에서 내 눈이 꼬챙이에 찢린 듯 쓰라린 통증이 지나갔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바다를 꿈꾸면서 콩치는 추위에 온몸을 떨었다. 친구에게 내가 지나온 길에 대해 이야기하며 소주를 마셨다. 접시에 토막 나서 널브러져 있는 과메기가 자신처럼 느껴져 입에 넣고 과거를 되씹듯이 자근자근 씹었다. 콩치가 과메기로 변신하는 과정은 중년을 지나는 우리의 삶과 비슷했다. 푸르고 싱싱했던 콩치는 간데없고 겨울 눈보라에 동상을 입은 과메기 두 마리가 밤이 늦도록 소주잔을 기울였다.

식당을 나오니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왔다. 달아오른 술기운 때문에 춥지는 않았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그의 손은 두툼하고 컸다. 거칠거칠한 손바닥이 따스한 온기를 가득 물고 있었다. 무척이나 정겹게 느껴졌다. 그것은 체내에 스며든 알코올 때문만은 아니었다. 세상 살이에 거칠고 딱딱해진 피부 아래에는 과메기의 속살처럼 부드럽고 은근한 정이 숨 쉬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는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릴 게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피부를 생각하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배어 있을 게 분명하다. 과메기의 피부가 거칠어지는 만큼 속살은 더욱 알차게 익어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아들은 상 위에 늘어놓은 과메기를 보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나는 초장을 찍은 살점을 미역에 싸서 먹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아들은 기대에 차서 먹기 시작했다. 한참동안 먹더니 비린내에 질린다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하긴 과메기만 먹으면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주방에 가서 오래전에 먹다가 둔 포도주를 가져와 한 잔 따라주었다. 소주가 없으니 썩 대신 닭이었다. 아내가 있었다면 어린 아들에게 술 먹인다고 아마 난리가 났을 터였다. 먹는 모습을 보며 맛있느냐고, 먹을 만하냐고 물었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하고 중얼거린다. 하긴 과메기의 깊은 맛을 알 나이는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달콤한 포도주와 함께 먹는 과메기라면 더욱 맛을 모를 일이다. 인생 길에서 마시는 쓰디쓴 소주와 함께 먹을 때 비로소 과메기의 제 맛이 드러나니까. 다음 겨울에는 아들과 함께 구룡포에 가서 소주를 마시며 과메기가 떠나온 바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싶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2월 1일~2월 15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2월 1일(수요일)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이사회를 주재하는 것으로 2월의 일정을 시작했으며, 2일(목요일)에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회에 참석했다.

3일(금요일)에는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수탁 신청과 관련하여 현장실사를 받았으며, 6일(월요일)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찬 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7일(화요일)에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 위원들과 장애인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가진 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단 회의와 한국데이지킨소시엄 총회를 연이어 주재했으며, 같은 날 국립장애인도서관 역할 정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8일(수요일)에는 KBS한국방송공사 박갑진 시청자본부장과 면담을 나누었으며, 다음 날인 9일(목요일)에는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수탁 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여했다.

10일(금요일)에는 서울맹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13일(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14일(화요일)에는 총선시민연대 대표자회의에 이어 이룸센터 운영위원회회의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한시련 정책자문위원회를 주재했다.

15일(수요일)에는 한시련 인사위원회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2월 중순까지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50)

### 1) ‘문을 잠꿨다’와 ‘문을 잠갔다’ 중 맞는 것은?

-답: 문을 잠갔다

-해설: 문을 잠꿨다는 잠갔다고 써야 옳은데 이유는 ‘잠그다’는 ‘잠가(잠그+아), 잠그니, 잠갔다’와 같이 활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잠그다’와 같이 활용하는 말에는 ‘담그다’가 있다.

-예시

ㄱ. 문을 꼭 잠가라

ㄴ. 손을 물에 담가라

### 2) ‘너도 소녀시대가 좋니?’, ‘너도 소녀시대가 좋으니?’ 중 어떤 말이 맞을까?

-답: 둘 다 맞음

-해설: 의문을 나타내는 ‘-니/으니’는 동사(동작을 나타내는 품사)에 붙을 때와 형용사(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에 붙을 때 차이가 있다. 동사의 경우 “밥을 먹니?”는 가능해도 “밥을 먹으니?”는 불가능하다. 반면 형용사는 “이 방이 좁니?”와 “이 방이 좁으니?” 둘 다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동사

-받침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모두 ‘-니’만 가능함

-예시: “하니가 번개같이 달리니?”, “철수가 책을 읽니?”(“철수가 책을 읽으니?”는 틀린 말)

#### 2)형용사

-받침이 없을 때: ‘-니’만 가능함/ 예시: “꽃이 예쁘니?”

-받침이 있을 때: ‘-니/-으니’ 둘 다 가능함 / 예시: “날씨가 좋니?” “날씨가 좋으니” 둘 다 맞는 말임.

▶출처: 「우리말 우리글 묻고 답하기(2010년 제3판 발행분)」(태학사 제공)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